

박은지(일동고 1년)·김솔님(포천고 1년) 1회 추천

포천문인협, 제7회 포천사랑백일장대회 장원 수상으로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종희)는 9월26일 포천 반월아트홀 광장에서 제7회 포천 사랑 백일장 대회를 40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수상자 중에서는 기성작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후원사인 '제3의 문학'이 장원수상자에게 1회 추천서를 수여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수상자로 박은지(일동고 1년)학생과 김솔님(포천고 1년)이 결정됐다.

박은지 학생은 고등부 문문부에서 장원을 수상했고 김솔님 학생은 고등부 산문부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이번 백일장 대회 시제는 평화 통일, 사랑, 숲, 친구 등이었으며 초등부에서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참가자 404명중 산문참가자 123명, 문문참가자는 281명이다.

이번 대회 심사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심과 본심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예심에는 문인협회 등단작가가 맡았으며 본심에는 문인협회 회원과 제3의문학 심사위원이 참가했으며 1차 상식은 10월말에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종희 심사위원장은 "시는 충추는 즐기고, 수필은 곁여가는 글이다. 글을 읽으며 현대를 사는 그들의 의식세계와 나름대로

의 청순하고, 진솔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알고 밤하늘의 영롱한 새벽별을 보는 듯, 청초한 아침이슬을 보는 듯, 파릇파릇 돌아오는 새싹을 보는 듯, 꾸밈없는 순수함에 기뻐서 큰 소리로 웃어바란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초등 산문부 ▶ 장원 정태경(포천초5년) ▶ 차상 이현민(왕방초 6년) ▶ 차상 이지연(포천초 5년) ▶ 차하 남지유(왕방초 6년) ▶ 차하 김예진(포천초 2년) ▶ 차하 이아연(태봉초 2년) ▶ 장려 이우정(이동초 3년) ▶ 장려 김혜수(관인초 6년) ▶ 장려 한솔희(신북초 4년) ▶ 장려 최유민(포천초 3년) ▶ 장려 이종은(화현초 6년) ▶ 중등 산문부 ▶ 장원 유혜정(이동중 1년) ▶ 차상 이연경(포천여중 2년) ▶ 차상 박이소(관인중 2년) ▶ 차하 이우리(내촌중 2년) ▶ 차하 정선혜(영북중 2년) ▶ 차하 박은혜(이동중 1년) ▶ 장려 지산하(영북중 2년) ▶ 장려 박이솔(대경중 2년) ▶ 장려이대영(동남중 1년) ▶ 장려 이소연(삼성중 2년) ▶ 고등 산문부 ▶ 장원 김솔님(포천고 1년) ▶ 차상 이해영(송우고 2년) ▶ 차하 박찬희(포천일고 3년) ▶ 장려 홍성인(포천일고 1년) ▶ 일반 산문부 ▶ 장려 백종민(신북면 기지리) ▶ 차상 정명신(신북면 가재리) ▶ 초등 문문부 ▶ 장원 조흥준(추산초



대경중학교(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학생들이 백일장대회에 참가해 작품을 제출하고 기념촬영 중

5년) ▶ 차상 황슬기(관인초 6년) ▶ 차상 박영선(영북초 1년) ▶ 차하 조현이(왕방초 6년) ▶ 차하 한혜주(정성초 3년) ▶ 차하 이다희(왕방초 3년) ▶ 장려 양애화(지현초 6년) ▶ 장려 정동아(이동중 2년) ▶ 장려 정동아(이동중 2년) ▶ 장려 최석주(송우고 1년) ▶ 문문부 고등부 ▶ 장원 박은지(일동고 1년) ▶ 차상 오단비(동남고 2년) ▶ 차상 이다솔(일동고 1년) ▶ 차하 변수지(일동고 1) ▶ 차하 조혜미(포천일고 3년) ▶ 일반 문문부 ▶ 이우미(포천시 신북면 가재리) ▶ 장려 박혜진(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 장려 포천시 신음동 인근영 ▶ 모지교사상 ▶ 영중초 ▶ 차상 삼인영(삼성중 2년) ▶ 차상 이연주(포천여중 3년) ▶ 차하 이시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116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리주홍 한국한시협회 포천시회장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열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사꾼들을 따라다니며 유기장사를 했다. 그 후 자립하여 큰 상업과 공장을 경영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오산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운동과 독립운동을 투신하게 되었다.

"105인 사건"으로 투옥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감옥이란 참 이상한 곳이야. 감찰같이 굳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석은 겨울대갈이 흩어져서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감옥은 그를 강철처럼 단련시킨 사람의 장소이자 훈련의 장소였다. 오산학교를 설립한 후 그는 아첨자들로 구성된 학교를 폐기하고,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그는 학교의 설립자였지만 교장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늦은 나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직접 배우고, 학생들과 더불어 교정을 청소했다.

그는 오산학교를 개교한 이래 교육이란 구국의 길이라는 신념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집과 땅을 비롯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놓았다. 그는 선생들에게 굶어서는 안 된다며 자기 집 쌀독에서 쌀을 퍼다 주었고, 비가 와 학교 지붕이 새면 자기 집 지붕에 있는 기와를 벗겨 대신 얹어주었다.

학교 경영이 점점 어려워져 얼마 남지 않은 땅을 팔고 남은 짐마차 팔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불평이 심하였다. 그러자 이승훈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팔아서 학교에 주고 우리는 학교 옆에서 학생들에게 밥을 지어 주면서 살면 되지 않소!"

하루는 이승훈이 밖에서 돌아와 혼자 학교를 돌보았는데 변소가 너무나 지저분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라 새싹이 튀어 한 무더기의 대변이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보자 이승훈은 도끼를 들고 변소 아래로 내려가 그것을 부수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 도끼를 빼앗았다.

그때 한 장교가 얼얼한 얼굴이 묻어 있는 이승훈을 보고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선생님, 좋은 것을 잡수셨군요." 그러자 이승훈이 대답했다. "아무 거라도 먹으면 좋은 거지."

3·1운동을 계획하고 있을 때 이승훈은 독립선언서에 기독교 대표 서명한 사람들을 분석했는데 몇몇 사람이 종교인으로서 서명하기 힘들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자 이승훈이 책임을 치면서 외쳤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서 내려다보면서 거기 앉아 있겠다는 게야?"

3월1일을 나를 앞두고 정동교회에 기독교 대표들이 모였다. 그런데 이승훈이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선언서에 서명할 순서 때문에 다투고 있었다. 이에 이승훈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서며 소리쳤다.

"순서야 무슨 순서야! 이거,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누굴 먼저 쓰면 그때! 순병회를 먼저 써! 일손 사람들 침묵을 지켰다. 그가 입술을 무뎠, 이승훈은 친구를 불러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은 뒤에 시체는 땅에 묻지 말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인쇄 표본을 만들어 학교에 길도록 하게.

그의 장례식은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오산학교에서 거행되었다. 그 뒤 대학원에서 해부학 교사로 표본 제작에 들어가려 했을 때 일본 총독부에서 이를 막았다. 결국 그의

유해는 다시 오산학교로 옮겨져 학교 인근에 묻혔다.

이승훈(李昇薰) 1864년(고종 1) ~ 1930년.

본관은 여주(驪州)이며 본명은 인환(寅煥), 호는 남강(南剛)이다. 여주 3살 때부터 3~4년간 서당에서 한문을 익히고 1874년 유기상(鑄器商)인 임권일 삼점(林權逸 商)의 사관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본격적으로 상인의 길로 들어서 민족기업가로 성장했다.

1907년 7월 평양에서 안창호의 강연을 듣고 비밀결사 신민회를 가담한 후 강령의숙(講明義塾)을 설립하고, 11월 24일 오산학교(五山學校)를 개교하여 교장이 되었다. 1911년 2월 안학사건(安學事件)에 연루되어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으며, 그 해 '105인 사건'이 일어나자 서울로 압송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1915년 가출옥하였다.

3·1운동 때 기독교 측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고, 곧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22년 가출옥하여 오산학교로 돌아왔다. 1924년 동아일보사 사장에 취임하여 1년 동안 경영하였는데, 이때 물산장려운동 등에 가담하였다. 그 후 다시 오산학교로 돌아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105인 사건 1910년 평북 선천(宣川)에서 안병근(安炳根)이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義) 총독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벌어지자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 회원과 평안도 일대의 민족적 기독교 신자들을 검거하였다. 이 때 이승훈 등 6백여 명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총독암살음모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자 일본 경찰은 혹독한 고문을 자행하고, 대표적인 인물 106명을 기소하였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106명은 상고를 제기하여 2심에서 99명이 무죄 석방되고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등 6명이 주모자로 몰려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뮤지컬 이야기 #61

100년의 영화 역사상 최고의 뮤지컬과 진 켈리(Gene Kelly)

투표와 평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인(?) 미국의 언론사나 잡지 그리고 연구소 등 많은 곳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걸쳐 설문조사와 함께 투표가 매년, 격년 혹은 10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역시 투표와 평가의 나라로 명명해 두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tbes)의 유명해 조사 분석 외에도 미국 영화연구소 AFI(American Film Institute)는 10년마다 최고의 영화를 뽑는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작품성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꾸준히 사랑 받는 대중성을 고려한 최고의 영화선정 과정은 매우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순위에 공감을 할 수 있는 평가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역사 100년 동안 놓칠 수 없는 100편의 영화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100년의 영화역사상 최고의 작품 10위안에 든다는 것은 개봉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많은 영화애호가들에게 사랑 받고 꾸준히 비디오판과 오디오 판이 팔리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안에 뮤지컬 영화가 두 편이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1939년에 만들어진 <오즈의 마법사>는 남녀노소를 초월한 명작으로 당당히 10위권에 들어있고 역시 뮤지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성과 오락성을 갖춘 기념비적인 작품 <사랑은 비를 타고(Singin' in the Rain, 1952)>가 뮤지컬 중에서는 단연 1위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사랑은 비를 타고>는 오리지널 영화버전 뮤지컬로 만들어졌으며 195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뮤지컬이자 세계 뮤지컬 역사상 최고의 뮤지컬로 국내에서도 많은 뮤지컬 애호가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이 작품 이외에도 10위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1950년대에는 <파리의 아메리칸인(American in Paris, 1951)>과 <지기의 아메리칸인(Gigi, 1958)> 두 작품 모두 작품상을 포함해 각각 5개와 9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파리의 아메리칸인>은 작품상 포함해 6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는데 감독을 맡았던 빈센트 미넬리(Vincente Minnelli)의 연출력이 돋보이기도 했지만 역시 이 작품은 진 켈리의 놀라운 호소력과 독창적이며 뛰어난 안무로 인해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조지 거쉬윈이 작곡한 17분의 음악에 안무를 붙여 50만 달러라는 거액을 쏟아 부은 마지막 드림 발레(dream ballet) 장면은 독창적이며 개척자적인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50년이 훨씬 넘은 오늘날에도 전혀 퇴색함이 보이지 않는 명장면으로 안무와 음악 그리고 세트가 삼위일체가 되어 살아 숨 쉬고 있다.

<지기(Gigi, 1958)>는 작품상을 포함해서 아카데미상 9개를 수상한 1950년대 또 하나의 명작이다. 이 뮤지컬 역시 오리지널 영화버전인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뮤지컬도 대중적이지는 못하지만 아름답고 따뜻한 영화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정치적 상황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뮤지컬 영화로 미국의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 같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1950년대에는 2편의 뮤지컬들이 수상대열에 합류했다. <파리의 아메리칸인(American in Paris, 1951)>과 <지기의 아메리칸인(Gigi, 1958)> 두 작품 모두 작품상을 포함해 각각 5개와 9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파리의 아메리칸인>은 작품상 포함해 6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는데 감독을 맡았던 빈센트 미넬리(Vincente Minnelli)의 연출력이 돋보이기도 했지만 역시 이 작품은 진 켈리의 놀라운 호소력과 독창적이며 뛰어난 안무로 인해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조지 거쉬윈이 작곡한 17분의 음악에 안무를 붙여 50만 달러라는 거액을 쏟아 부은 마지막 드림 발레(dream ballet) 장면은 독창적이며 개척자적인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50년이 훨씬 넘은 오늘날에도 전혀 퇴색함이 보이지 않는 명장면으로 안무와 음악 그리고 세트가 삼위일체가 되어 살아 숨 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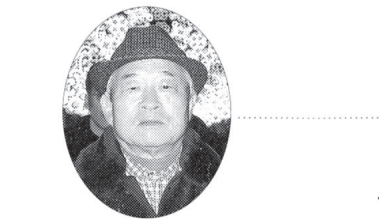
<지기(Gigi, 1958)>는 작품상을 포함해서 아카데미상 9개를 수상한 1950년대 또 하나의 명작이다. 이 뮤지컬 역시 오리지널 영화버전인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뮤지컬도 대중적이지는 못하지만 아름답고 따뜻한 영화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정치적 상황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뮤지컬 영화로 미국의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 같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1950년대에는 2편의 뮤지컬들이 수상대열에 합류했다. <파리의 아메리칸인(American in Paris, 1951)>과 <지기의 아메리칸인(Gigi, 1958)> 두 작품 모두 작품상을 포함해 각각 5개와 9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파리의 아메리칸인>은 작품상 포함해 6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는데 감독을 맡았던 빈센트 미넬리(Vincente Minnelli)의 연출력이 돋보이기도 했지만 역시 이 작품은 진 켈리의 놀라운 호소력과 독창적이며 뛰어난 안무로 인해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조지 거쉬윈이 작곡한 17분의 음악에 안무를 붙여 50만 달러라는 거액을 쏟아 부은 마지막 드림 발레(dream ballet) 장면은 독창적이며 개척자적인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50년이 훨씬 넘은 오늘날에도 전혀 퇴색함이 보이지 않는 명장면으로 안무와 음악 그리고 세트가 삼위일체가 되어 살아 숨 쉬고 있다.

<지기(Gigi, 1958)>는 작품상을 포함해서 아카데미상 9개를 수상한 1950년대 또 하나의 명작이다. 이 뮤지컬 역시 오리지널 영화버전인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뮤지컬도 대중적이지는 못하지만 아름답고 따뜻한 영화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49)

두뇌 건강 이야기 (노인 건강)

너스바움 박사는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 질환의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다"고 설명했다. 메트라이프는 최근 메트라이프 노인연구소의 최근 아메, 임상 신경심리학자 폴 너스바움 박사의 연구 결과인 '두뇌 건강법 10가지'를 공개했다.

첫째 금연(담배는 암, 심장병, 뇌졸중 초래 위험 요인이다.) 둘째 의사의 조언을 따르라(주치의와의 건강한 관계유지)

셋째 운동량을 늘려라(운동은 뇌를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주며

기억력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넷째 하루 섭취 칼로리를 줄여라(식사에 주의, 잡자리 들기 전 먹지 않기,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 평소 식사의 80%만 섭취하기)

다섯째 사람을 사귀고 삶을 즐겨라. 사교(社交)는 젊고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그 자체가 즐거움이기도 하다. 고독은 곧 죽음의 길이다.

여섯째 정신을 수련하라. 기도, 명상, 요가, 등산, 산책 등은 건강에 좋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글쓰기·독서)

일곱째 두뇌를 다양하게 훈련시켜라. 악기연주, 낚시게임, 탁

구, 카드놀이, 화초재배, 외국어 배우기, 춤추기, 노래하기 등등 각종 취미활동은 두뇌를 발달시킨다. 여덟째 자기 역할과 목적의식을 유지시켜라. 은퇴는 사회참여의 새로운 방식의 활동 기회이다. 목적을 가지고 산다. 나이가 들면 뇌 속에는 어느 때나 떠올릴 수 있는 수백 만 가지의 체계화된 장면과 사실이 기록되어서 이 많은 정보를 잘 종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된다. 연륜이 있는 사람이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컴퓨터의 250만 배의 저장능력)

아홉째 미래를 위해 지금 저축을 시작하라.(저축을 시작하는 데는 이

른 나이도 없고 늦은 나이도 없다.) 열 번째 사회적 관계를 넓혀라.(취미를 만들고 평생의 목표를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넓혀라. 친구, 가족, 파트너, 동인, 동향인, 동창, 동급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두뇌 건강을 위한 투자이다. 요즈음 같이 등단 흥수 시대에 문단에 등단하여 문단 선배들과 어울리고 늦깎이 석·박사 과정 이수 등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내 고향 포천에는 옛부터 선비들의 모임이 많았다. 낙향 선비들은 서원과 향교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였으며 서당을 만들고 후학들을 가르쳤으며 정자를 만들어 시회(詩會)를 춘추(春秋)로 열기도 하였다. 그래서 치매노인이 없기로 유명한 내 고향이었다. 요즈음 포천 향교, 유림회, 한시사, 문화원 활동, 각종 예술·여성단체 미래를 위해 지금 저축을 시작하라.(저축을 시작하는 데는 이

른 나이도 없고 늦은 나이도 없다.) 열 번째 사회적 관계를 넓혀라.(취미를 만들고 평생의 목표를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넓혀라. 친구, 가족, 파트너, 동인, 동향인, 동창, 동급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두뇌 건강을 위한 투자이다. 요즈음 같이 등단 흥수 시대에 문단에 등단하여 문단 선배들과 어울리고 늦깎이 석·박사 과정 이수 등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내 고향 포천에는 옛부터 선비들의 모임이 많았다. 낙향 선비들은 서원과 향교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였으며 서당을 만들고 후학들을 가르쳤으며 정자를 만들어 시회(詩會)를 춘추(春秋)로 열기도 하였다. 그래서 치매노인이 없기로 유명한 내 고향이었다. 요즈음 포천 향교, 유림회, 한시사, 문화원 활동, 각종 예술·여성단체 미래를 위해 지금 저축을 시작하라.(저축을 시작하는 데는 이

른 나이도 없고 늦은 나이도 없다.) 열 번째 사회적 관계를 넓혀라.(취미를 만들고 평생의 목표를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넓혀라. 친구, 가족, 파트너, 동인, 동향인, 동창, 동급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두뇌 건강을 위한 투자이다. 요즈음 같이 등단 흥수 시대에 문단에 등단하여 문단 선배들과 어울리고 늦깎이 석·박사 과정 이수 등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내 고향 포천에는 옛부터 선비들의 모임이 많았다. 낙향 선비들은 서원과 향교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였으며 서당을 만들고 후학들을 가르쳤으며 정자를 만들어 시회(詩會)를 춘추(春秋)로 열기도 하였다. 그래서 치매노인이 없기로 유명한 내 고향이었다. 요즈음 포천 향교, 유림회, 한시사, 문화원 활동, 각종 예술·여성단체 미래를 위해 지금 저축을 시작하라.(저축을 시작하는 데는 이

른 나이도 없고 늦은 나이도 없다.) 열 번째 사회적 관계를 넓혀라.(취미를 만들고 평생의 목표를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넓혀라. 친구, 가족, 파트너, 동인, 동향인, 동창, 동급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두뇌 건강을 위한 투자이다. 요즈음 같이 등단 흥수 시대에 문단에 등단하여 문단 선배들과 어울리고 늦깎이 석·박사 과정 이수 등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내 고향 포천에는 옛부터 선비들의 모임이 많았다. 낙향 선비들은 서원과 향교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였으며 서당을 만들고 후학들을 가르쳤으며 정자를 만들어 시회(詩會)를 춘추(春秋)로 열기도 하였다. 그래서 치매노인이 없기로 유명한 내 고향이었다. 요즈음 포천 향교, 유림회, 한시사, 문화원 활동, 각종 예술·여성단체 미래를 위해 지금 저축을 시작하라.(저축을 시작하는 데는 이

른 나이도 없고 늦은 나이도 없다.) 열 번째 사회적 관계를 넓혀라.(취미를 만들고 평생의 목표를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넓혀라. 친구, 가족, 파트너, 동인, 동향인, 동창, 동급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두뇌 건강을 위한 투자이다. 요즈음 같이 등단 흥수 시대에 문단에 등단하여 문단 선배들과 어울리고 늦깎이 석·박사 과정 이수 등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예/술/칼/럼

도무지 왜 이리십니까

요즘 정안에 난무하는 인터넷 유포와 세간을 떠도는 번지 불명의 루머들이 불타고 있다. 누가 누구를 위한 댓글이며 루머인가.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다. 비겁하고 구역질난다. 어찌 이 꼴로 탈을 쓰는가 말다.

도대체 물질의 체증인가, 가치관의 파산인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등배가 부러진다. 그래도 과거 표본의 청개구리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 놓지 않았던가. 그냥 뱀을 한 마리만 놓아도 생명을 잃을 것인데 도끼라는 것에 소름이 돋아야 한다. 결국 독 품은 침이 후일 자신의 발목을 찍는다는 사실을 왜들 모를까. 사투 담당하다. 더구나 지성과 예술의 현장에서까지 '허여'가 의도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더욱 우려 사나운 일이다.

소위 문인이라 자칭하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창작과 감성 수준의 수분(水分)을 모르고 거들먹이며 오만하다. 때론 발표 문예지의 사소한 실수를 들추어내어 혼돈에 대고 인격상해를 하기도 한다. 매사 사회적 인품이 우선이고 지성과 예술적 품격이 그 다음이다. 명예와 자존을 잃어주는 예술은 허사비다. 예술은 작고 사소한 일에 용모와 찬사를 보낼 때 그 뜻은 아름답고 인간의 품격은 고양되는 것이다. 남을 헐뜯고 모욕하는 고약한 폼파질은 이제 그만하자.

그렇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한낱 유포대만 최고로 여

기는 풍조가 화병이다. 그것은 성공과 영화라는 집착에서 파생된 좌절과 상처의 허무극이다. 이 또한 지식사회의 대량 종교적 설교의 필미 현상이다. 인간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 일에 대한 열정과 성공에 대한 열망에서 오는 자본주의적 허탈감이라 해도 좋다.

이리 먹거리 문제는 진작 해결되어 오고 인간관계의 이반 내지는 문화적 욕구의 소통에서 빛이자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에 있어 도시화된 주관적 불만과 변을 갖이갈 도끼라는 것에 소름이 돋아야 한다. 결국 독 품은 침이 후일 자신의 발목을 찍는다는 사실을 왜들 모를까. 사투 담당하다. 더구나 지성과 예술의 현장에서까지 '허여'가 의도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더욱 우려 사나운 일이다.

소위 문인이라 자칭하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창작과 감성 수준의 수분(水分)을 모르고 거들먹이며 오만하다. 때론 발표 문예지의 사소한 실수를 들추어내어 혼돈에 대고 인격상해를 하기도 한다. 매사 사회적 인품이 우선이고 지성과 예술적 품격이 그 다음이다. 명예와 자존을 잃어주는 예술은 허사비다. 예술은 작고 사소한 일에 용모와 찬사를 보낼 때 그 뜻은 아름답고 인간의 품격은 고양되는 것이다. 남을 헐뜯고 모욕하는 고약한 폼파질은 이제 그만하자.

그렇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한낱 유포대만 최고로 여

기는 풍조가 화병이다. 그것은 성공과 영화라는 집착에서 파생된 좌절과 상처의 허무극이다. 이 또한 지식사회의 대량 종교적 설교의 필미 현상이다. 인간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 일에 대한 열정과 성공에 대한 열망에서 오는 자본주의적 허탈감이라 해도 좋다.

이리 먹거리 문제는 진작 해결되어 오고 인간관계의 이반 내지는 문화적 욕구의 소통에서 빛이자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에 있어 도시화된 주관적 불만과 변을 갖이갈 도끼라는 것에 소름이 돋아야 한다. 결국 독 품은 침이 후일 자신의 발목을 찍는다는 사실을 왜들 모를까. 사투 담당하다. 더구나 지성과 예술의 현장에서까지 '허여'가 의도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더욱 우려 사나운 일이다.

소위 문인이라 자칭하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창작과 감성 수준의 수분(水分)을 모르고 거들먹이며 오만하다. 때론 발표 문예지의 사소한 실수를 들추어내어 혼돈에 대고 인격상해를 하기도 한다. 매사 사회적 인품이 우선이고 지성과 예술적 품격이 그 다음이다. 명예와 자존을 잃어주는 예술은 허사비다. 예술은 작고 사소한 일에 용모와 찬사를 보낼 때 그 뜻은 아름답고 인간의 품격은 고양되는 것이다. 남을 헐뜯고 모욕하는 고약한 폼파질은 이제 그만하자.

그렇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한낱 유포대만 최고로 여

로 선택한 것도 아니다. 분명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고귀한 사용의 가치인 것이다.

모든 생명의 권리와 의무는 하늘과 땅과 인간과의 천부적 은사이며 약육의 이행과 화해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쩌면 세상이 소금만 너무 많아 세상이 짜고 쓰다. 단맛이 부족하다. 아니 맛을 내는 양념의 부재다. 자기변명과 세상을 성급히 바꾸려는 강박관념에 불과하다. 우리는 소유에서 없는 아픔보다 나눔의 미덕을 칭찬해야 한다. 너무 가혹하면 넘치는 법이다. 이제는 황금만능의 우물증을 씻고 운동과 예술로 승화시켜야만 한다. 넘치는 삶보다는 채우는 삶이 더 아름답다. 물질적 빈곤에서 오는 불행보다는 정신적 공허에서 오는 아픔이 더 무겁다. 지금의 물질적 풍요로움이 정신적 우물을 해결할 수는 없다. 풀이 달리고 해서 풀만은 먹고살았는데, 사람은 풀보다 달고 했다. 풀만을 먹으며 하기 이전에 사랑을 먼저 해야 한다. 사랑의 묘약도 다 사라졌다. 미움의 묘약도 그 처방은 같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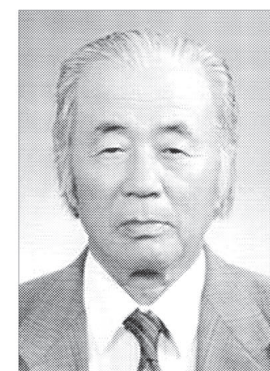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그러므로 예술의 미학을 탐구함이 그 가능성이 다.

초대 漢詩 追慕毅菴柳麟錫先生學德(추모 의암 유인석선생 학덕)



楊載昌 錦錫 楊載昌 전 포천향교 전교

追慕毅菴柳麟錫(추모의암도자양) 尊崇學德敬心長(손승학덕경심장) 의암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암명당을 찾아가 배향하니, 높으신 학덕에 공경하는 마음 긴장하네.

抗復倡義千秋赫(항복창의천추혁) 回復國權萬代香(회복국권만대향) 왜적에 일거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니 천추에 빛나고, 마침내 국권을 회복한 것은 만대에 향기로울 것이다.

後進養成扶社稷(후진양성부사직) 棟材輩出耀家鄉(동재배출요가향) 후진을 양성하여(많은 제자) 사직을 지켰으며, 많은 영재(의사)들을 배출하여 가정과 나라를 빛나게 했다.

燦烈偉蹟履青史(찬열위적승정사) 遺志奉宣豈敢忘(유지봉선기감망) 빛나도다 선생의 위대한 업적은 청사에 드러났는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펴는 일을 아찌 감히 잊어도다.

燦烈偉蹟履青史(찬열위적승정사) 遺志奉宣豈敢忘(유지봉선기감망) 빛나도다 선생의 위대한 업적은 청사에 드러났는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펴는 일을 아찌 감히 잊어도다.

燦烈偉蹟履青史(찬열위적승정사) 遺志奉宣豈敢忘(유지봉선기감망) 빛나도다 선생의 위대한 업적은 청사에 드러났는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펴는 일을 아찌 감히 잊어도다.

燦烈偉蹟履青史(찬열위적승정사) 遺志奉宣豈敢忘(유지봉선기감망) 빛나도다 선생의 위대한 업적은 청사에 드러났는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펴는 일을 아찌 감히 잊어도다.

燦烈偉蹟履青史(찬열위적승정사) 遺志奉宣豈敢忘(유지봉선기감망) 빛나도다 선생의 위대한 업적은 청사에 드러났는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펴는 일을 아찌 감히 잊어도다.